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2.(목) 11:00,
(지면) 2023. 11. 3.(금) 조간

배포 2023. 11. 2.(목) 06:00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 강진군에 마련, 11월 3일 준공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11월 3일(금) 준공식을 갖는다.

*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포함)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 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 망태에 탄소흡수원으로 여겨지는 굴패각과 돌을 함께 넣어 만든 것으로, 해조류·어류 등의 서식지가 되어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 탄소흡수량: (2022) 약 1.1만 톤 → (2030) 106.6만 톤 → (2050) 136.2만 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0-53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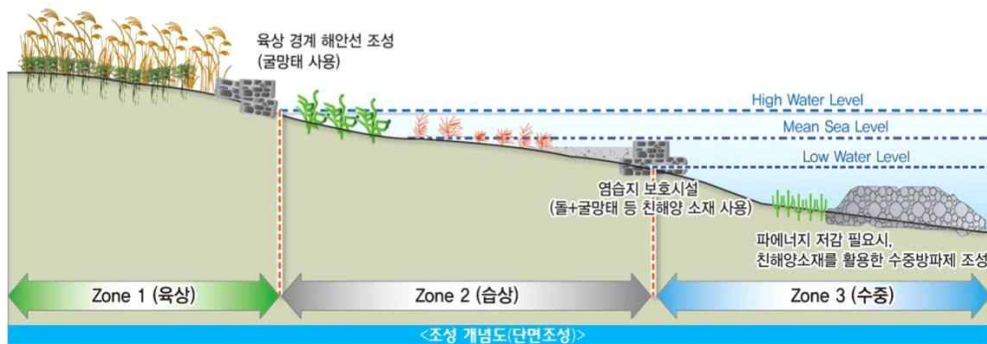
블루카본 시범 서식지 개요

- 블루리빙 공법 : 친해양소재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복원해 침식방지, 해양산성화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 자연 해안선 복원에 적용가능한 개념설계안 수립
 - 염생식물 서식지 Zoning, 친해양 소재를 활용한 건설 염생식물 보호
- 시범 대상지를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을 고려하여 '강진 망호 갯벌'로 선정

블루카본 기반 해안조성을 위한 블루리빙 공법 개념설계

❖ 단면조성 : 염생식물 서식지 Zoning, 친해양 소재를 활용한 블루카본 고정

- Zone 1(육상 보호시설): 굴망태를 활용하여 자연해안 조성 및 건설 염생식물 보호
- Zone 2(습상 보호시설): 굴+돌망태 등 친해양 소재를 사용하여 건설 및 습상 염생식물 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
- Zone 3(수중 보호시설): 파에너지 저감 및 퇴적유도로 건설, 습상, 해양 염생식물 서식지 확장 및 안정화



○ 평면배치계획

